

# 여수시, 비즈니스 관광 '마이스산업' 육성 박차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복합산업〉

지난해 조례 제정 ... 올 7만명 유치 목표

단체 임원 등 초청 팸투어·산업전 계획

2012 세계 박람회 성공적으로 개최한 여수시가 높아진 인지도와 기반시설을 토대로 최근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마이스(MICE) 산업 육성에 온 힘을 모으고 있다.

'마이스 산업'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영어로, '비즈니스 관광(BT)'이라고도 한다. 여수시는 지난해 기초자치단체 최

초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여세를 몰아 올해 7만명 유치를 목표로 내세웠다.

컨벤션 시설 6700석, 엑스포 홀과 예술마루 등 전시·공연시설 3500석, 17곳의 호텔·콘도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올해 80명 이상이 참석하는 세미나와 워크숍, 심포지엄에 1박 이상 투숙할 때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한다.

또 국내 마이스 주최 단체 임원과 국제회의 전문 운영업체(PCO)를 초청, 팸투어 행사, 엑스포 전시부스 운영, 국내외 마이스산업전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6년에는 전국 마이스 워크숍 유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마이스협회, 전국 각 대학과 전문대학, 학회, 기관·단체를 방문해 홍보하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이달까지 총 27건

의 각종 마이스 행사를 유치해 지난해 같은 기간(2670명)보다 2배 이상인 5425명이 여수를 다녀갔다.

여수시 관계자는 "현재 추세로 보면 올해 7만명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마이스산업 육성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봄의 전령사' 유채꽃 활짝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에 노란 유채꽃이 꽃망울을 터뜨렸다. 봄소식을 일찌감치 전하는 '봄의 전령' 유채꽃 꽃말은 '명랑', '쾌활', '풍요로움'이다.

〈여수시 제공〉

## 구례 산수유축제 다음달 22일 열려

마당극·족욕 체험 등 다채

아이돌 K-POP 스타 참여

제15회 구례 산수유꽃축제가 3월 22일부터 30일까지 산동면 지리산온천관광지 일원에서 열린다. 예전에는 3일간 축제를 열었으나 올해는 9일로 늘렸다.

'영원한 사랑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산수유꽃 축제 상설무대, 산수유꽃 담길, 산수유 수석공원을 새롭게 조성해 더욱 콘텐츠를 강화했다.

3월 22일 오전 10시 산동면 계획마을 시목지(전남도 중요 농업유산 제1호)에서 열리는 풍년 기원제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주요 축제 프로그램은 지난해에 창극으로 선보인 '산수유 내 사랑'을 재구성한 마당극과 지리

산 온천수를 이용한 '산수유 족욕 체험', '산수유 음식체험' 등 다채롭게 꾸며진다.

특히 지리산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항과 지리산권 7개 시·군이 추진하는 '2014 지리산권 방문의 해'를 맞아 아이돌 K-POP 스타가 참여하는 특별 이벤트도 열린다.

이 밖에도 '산수유 꽃담길 하트 랠리'와 전국 어린이·학생 산수유 축제, 산수유 마켓리뷰 등 체험행사도 준비했다.

박민수 축제추진 위원장은 "구례는 전국 산수유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수유 고장"이라며 "연인과 가족, 친구들과 함께 구례를 방문해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이성구 lsg@kwangju.co.kr

## 광양, 올 상반기 2142억 조기 집행

지역 경기 활성화 중점

광양시가 지역 실물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 2142억원을 조기 투입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성용 광양시장은 지난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4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보고회'를 갖고 "이번 재정 조기집행으로 시민의 생활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광양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총괄반·집행지원반·자금지원반·사업추진반 등 조기집행 추진상황실을 운영한다.

광양시는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 합동 설계단을 운영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달중 발주할 예정이다.

또 1억원 이상 주요 사업은 설계, 발주, 착공 등 공정별 추진상황과 부진사업 등 집행 현황을 점검하는 보고회를 주기적으로 열어 내실 있는 예산집행을 하기로 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시민 실물경제 활성화, 지역 경기 회복에 따른 재정수입 증대와 재정집행의 건전성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전북

# 순창, 섬진강변 오토캠핑장 조성

114억 들여 향가마을 인근 6만㎡ 규모

체류형 관광 활성화 ... 내년 3월 완공

순창군이 지역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섬진강변에 오토 캠핑장을 조성한다.

순창군은 "섬진강변의 풍산면 향가마을 인근에 6만1757㎡ 규모의 오토캠핑장을 만든다"고 23일 밝혔다.

오토캠핑장은 사업비 114억원이 투입되며 아영장과 체육시설, 취사장, 샤워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다.

이달 말 공사에 들어가며 내년 3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또 마을주민 편의를 위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향가마을 노후담장 정비에 비롯해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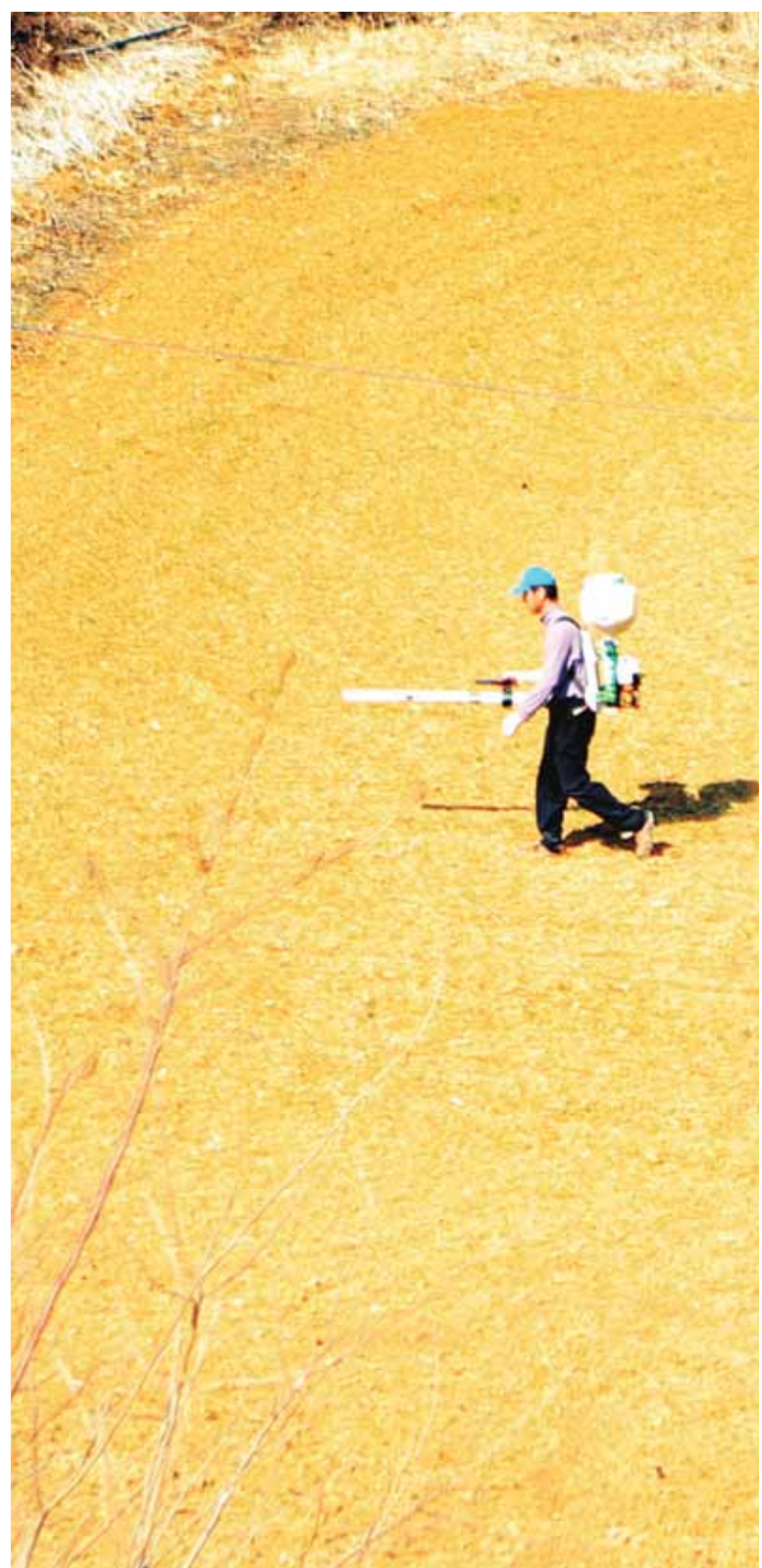
군은 지난 20일 향가마을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주민들이 불편함

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은 섬진강 자전거 도로와 향가유원지를 연계한 관광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다양한 볼거리와 관광자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섬진강과 향가유원지를 끼고 있어 관광객 유인효과가 클 것"이라며 "도시민이 편안히 쉬면서 섬진강의 아름다운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밀밭 비료 뿌리는 농부

정읍시 정우면 우산마을 주민이 지난해 11월 밀밭에 소형 농기계를 이용해 비료를 뿌려주고 있다.

정읍시 정우면 우산마을 주민이 지난해 11월 밀밭에 소형 농기계를 이용해 비료를 뿌려주고 있다.

/연남뉴스

## 단신

전주, 장애인 가족지원·인권센터 개소

전주시가 장애인 가정의 삶의 질과 인권개선을 위해 지난 21일 장애인 가족지원·인권센터를 개소했다.

이 센터는 매년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장애인 가족의 역량강화, 교육지원, 갈등 치유, 상담, 차별·인권침해 예방 등에 나선다.

완산구 기린대로 전북 병무청 앞

에 위치한 센터에서는 민간 전문요원 3명이 근무한다.

전주시는 이 센터의 출범으로 그동안 장애인들에게 한정됐던 서비스가 장애인 가족들에게도 확대돼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전주·부인=강철수기자 knews@

정읍시, 교육·학술연구 자료 제공 통계연보 발행

정읍시는 시정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급 행정기관의 정책수립과 기업의 경영계획, 교육 및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정읍시 통계연보(총 618페이지)를 펴냈다. 이번이 발간된 통계연보의 작성 기준일은 2012년 12월 31일이다.

통계연보에는 정읍인구 및 토지와 기후 및 노동, 산업체 및 주택·건설, 환경 등 16개 분야 237개 항목에 대한 각 분야별 현황과 부록 11개 항목을 수록했다. 시는 정읍의 통계 홈페이지(stat.jeongeup.go.kr)를 통해서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순창, 세계김치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

순창군은 한국식품연구원 부설 세계김치연구소(소장 박재완)와 지난 21일 농업기술센터 다목적강당에서 발효식품 및 6차산업 분야 연구·학술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음용 온천수와 강천산, 섬진강의 관광자원 및 블루베리, 꾸지뽕, 삼채 등 농·특산물과 U-웰스, U-캐

터를 활용한 ICT(정보통신기술) 양·한방 융합 힐링 거점 조성을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계 김치연구소의 연구·개발 역량을 군 생산 농산물에 적용시켜 발효산업 및 6차 산업 발전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고창, 선운산 도립공원 '노점상 실명제'

고창군이 선운산 도립공원내 올바른 상행위 문화 조성을 위해 '노점상 실명제'를 실시한다.

군은 '노점 상명제' 표지판을 제작 지원해 판매자 이름과 전화번호 등 현황을 노점별로 표시할 계획이다.

군은 도립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주의 생계유지를 위해 2010년부

터 노점 판매 부스를 제작 지원하고, 허용구간에서만 노점 행위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노점 상명제' 도입으로 노점상 스스로 불량식품을 근절하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판매해 다시 찾고 싶은 공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

## 고창 용계마을, 자연생태 우수마을 선정

고창군 아산면 용계마을이 환경부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선정됐다.

용계마을은 국가습지 보호지역과 탐사르 습지,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인 운곡습지와 인접해 있다.

용계마을은 인근에 있는 독곡마

을과 함께 지난해 여행작가와 파워블로거 등을 대상으로 운곡습지 생태체험 관광을 추진,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용계마을은 앞으로 용계 청자 도요지를 대상으로 선정된 '생생문화재 사업'과 마을기업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게 된다.

또 마을에서 운곡 습지까지 탐방열차를 제작 운행해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체험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용계마을 주민 스스로 자연생태 환경을 보전·발전시켜 생태체험 관광을 통한 소득증대와 함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